사랑의 텃밭

2020 APRIL 미주 한인 ME 소식

www.wwmekorean.org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미주한인ME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Region 19, USA

대표사제: 조민현 요셉, 대표부부: 양승헌 요한+경애 젬마

대화 기도 평생 공동체

2020 APR 사랑의 텃밭

1.	가까운 행복	Pg. 2
2.	조민현 신부의 FEEL레 미농	3
3.	리전대표부부:무조건 사랑하라고??	5
4.	이달의 스타:김창신 아오스딩 신부님	6
5.	부부 톡톡: 김영환 스테파노+헬레나	8
6.	느낌 VS 생각:부드러운 말	10
7.	4월과 5월 매일 대화 질문 당신은 다 대화계획이 있구나 ?!	11
8.	에드먼튼 주말 소식	13
	우리 부부의 소감	14
9.	주말에 생긴 일 김배식 베드로+세라피나	15
10.	10/10: COVID-19 사태로 인해 주종익 비오 + 비아	17
11.	중북부 ME 세계 결혼의 날	18
12.	사랑의 편지: 강보나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19
13.	마침기도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기도	21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발행:WWME Region 19 USA, 미주 한인 ME
대표팀 조민현 요셉 신부, 양승헌 요한 + 이경애 젬마

구성,편집 :김미카엘+말가리다, 양요한+젬마
Please send comments or suggestions to wwmekorean.org

OUR LADY OF GUADALUPE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46~48)

미주 한인 ME
WWME REGION 19
wwmekorean.org

2020 APR

미주 한인 ME 소식지 '사랑의 텃밭'

가까운 행복

산 너머 산
바다 건너 바다
마음 뒤의 마음
그리고 가장 완전한 꿈속의 어떤 사람

상상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멀어서 아름답지

그러나 내가
오늘도 가까이
안아야 할 행복은

바로 앞의 산
바로 앞의 바다
바로 앞의 내 마음
바로 앞의 그 사람

놓치지 말자
보내지 말자

이해인 "가까운 행복", 『작은기쁨』에서

조민현 신부의 FEEL레 미뇽

조민현 요셉 신부님은 현재 뉴저지 뉴왁(Newark)교구 성 마이클 성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사목 중이시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속의 두 교회를 겪으며 값진 체험을 한 신부님의 따듯한 글을 읽노라면 어쩌면 우리가 놓치며 살고 있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제6대 Region 19 대표사제를 역임하신 조신부님은 2020년 부터는 3년 임기의 **8대 리전 대표사제**를 다시 맡아주셨다. 필레미뇽(Filet Mignon)은 신부님의 한국 성함 발음을 어려워 하는 미국 신자들을 위한 신부님의 애칭이다.
조 신부님의 성찬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성격유형

천주교에서는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 ME (Marriage Encounter)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성 김대건 성당에 가자 마자, 자꾸만 신자들이 나보고 ME에 들어가라고 압력을 넣는데 왜 부부들이 하는 것을 신부인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강제로 떠밀려 2박 3일 주말을 수강했는데 부부들이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고 머리를 맞대고 뽀뽀도 하며 친밀감을 표현할 때 나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나는 디퍼(deeper) 주말까지 갔다 와서 결국 ME 주말을 인도하는 발표신부가 되었다.

ME에서 가장 주요한 것이 부부들이 배우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찾아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다.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왜 배우자가 저러는지 밉고 이해할 수가 없어 오랜 시간 너무나 고통받았는데 상대방의 성격유형을 알고 나서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내 배우자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가는 활동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성격유형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거의 변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성격유형을 알고 나서야 아하! 하며 꽉꽉 막힌 듯 어려웠던 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부부들이 많다.

처음에 나의 성격유형을 분석할 때 촉매형이 나오길래 나는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을 했다. 테스트가 단순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신학교에서 더 복잡한 테스트도 받아봤는데

사고형이었다고 우겨댔다. 내가 이리 튀고 저리 튀며 마음대로 행동하는 촉매형일 수가 없고, 오히려 사려 깊고 신중한 사고형 이거나 꼼꼼한 조직형이라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나보다 더한 촉매형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만났다. 그 자매가 주말 동안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나의 모습이 거꾸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야, 나도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도 저랬는데, 그러다보니 그 오랜 시간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역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참, ME 운동에 발을 디딘지 15년이 지나서야 겨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참, 내가 저 자매처럼 사회의 통념과 틀을 깨고 남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내마음대로 이리저리 튀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힘이 들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신부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거의 기적이 아닌가 싶다. 하느님과 많은 신자들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지켜져 온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태어난 성격유형이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고형처럼 되고 조직형처럼 혹은 협조형처럼 행동은 할 수 있어도 내 안에 가장 두드러진 성격유형은 잘 변하지 않는다. 남들에게는 뻔히 보이는데도 내 스스로 깨닫는 데는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금이라도 내 모습이 보이니 참 다행이다. 이제는 그만 튀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잘 될까 모르겠다.

브라질 상파울로 주말에서

성미카엘 성당에서 사순 1주차 유튜브 방송을 녹화중이신 조 신부님. 좋아요!

무조건 사랑하라고???

Region19 대표부부
양승헌 요한 + 젬마

✝ 찬미예수님,

연말에 친구 부부들과 송년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오랜 만의 만남이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갔었는데 한 친구 부부가 앞에 나와 온갖 몸짓을 곁들이며 "무조건"이라는 성인 트로트가요를 불렀다. 가사는 이렇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꺼야, 무조건 달려갈꺼야." 노래가 끝나자, 한 친구가 "이건 성인(成人)가요가 아니라 성인(聖人) 가요야!"라고 말했다. 다들 웃으며 넘어갔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 옆을 쿡쿡 찌르며 우리가 보낸 첫주말을 생각했다.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이 존경받을 점이 없더라도 무조건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존경하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칭찬, 격려, 인정, 사랑, 존중, 존경을 필요로 합니다."('로맨스는 길게 환멸은 짧게'에서, 양상규/김미희 부부 공저)

주말에서 이렇게 말하는 발표부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별로 공감할 수 없었다. 말이 그렇지, 사랑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데 무조건 사랑하라니!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일단 존경하라고? 그것도 무조건? How??? 우리는 그때 돈벌기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던 터라 말 그대로 발바닥 손바닥 신자였을 뿐이고 지인의 권유에 못 이겨 ME 주말에 떠 밀려 들어 온 것도 시간이 아까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단단하던 마음은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조금씩, 아니 왕창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봉사부부와 신부님의 헌신적인 봉사, 안면도 없는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던 ME 공동체 부부들의 사랑, 우리와 똑같은 환멸을 겪었던 발표부부의 이야기, 짧게만 느껴졌던 긴 대화를 거치면서 우리 부부는 비로소 배우자가 서로에게 해온 모든 일들이 바로 하느님의 손길이었으며 하느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다. 그렇구나, 바로 이런 게 무조건이었구나! 사소해 보이던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섭리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우리 모습은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방탕한 아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 물론 주말 후에 밀린 이슈를 두고 설전을 벌인 적도 많고 주말 전과 다름 없이 치열한 냉전을 벌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주말로 인해, 주말에서 배운 대화방법으로 인해, 그리고 주말에서 깨달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해, 단연코 우리의 로맨스는 길어졌고 환멸은 짧아지는, 거의 기적과 같은 사랑을 체험했다. 우리 같이 부족한 부부가 이럴진대, 다른 부부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부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Happy 10/10!

이달의 스타: 김창신 아오스딩 신부님 (남가주 ME 대표사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주민 사목을 담당하셨던 김창신 신부님께서는 이곳 미국에 와서 자신이 직접 이주민이 되셨다. 역시 이주민인 미주 한인들의 형편이 낯설지 않다는 신부님은 교회가 고국을 떠난 신자들에게 큰 위안과 친교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달의 포커스는 남가주 ME의 완소남, 따듯한 미소와 엄청난 열정의 김창신 신부님이다.

"ME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미주지역 ME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가주 한인 ME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신 아오스딩 신부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미주 지역 ME 가족들과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LA 한인타운 중심에 있는 성 바실 한인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교구에서 이주사목을 담당할 때 ME 봉사부부였던 누님과 매형의 강한 요청에 밀려서
ME 첫주말과 디퍼주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ME 발표사제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곳 LA 교포사목으로 발령이 나면서 ME 발표사제라는 멍에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가주 한인 본당 신부님들 중에 ME 디퍼주말에 참여하신 분들이 안 계신 관계로
선택의 여지없이 자동으로 전임 신부님의 후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며 남가주 ME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가주 ME 발표부부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회의 말미에 '기도 마니또 뽑기'가 있었습니다.
각 부부가 쪽지에 기도지향을 적고 자기 것이 아닌 다른 부부의 쪽지를 선택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무일도를 바치면서 청원기도 때 기억해야 할 지향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2014년 한국 ME 주말에서

남가주 성 바실 성당 행사에서

그런데 하루는 문득 'ME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ME 부부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들었던 물음일 수 있었는데 딱히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ME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부부나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부부나 가족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이며, 부부가 기도할 때 그 가족은 기도하는 가정이 됩니다.

제가 가끔씩 흥얼거리는 노래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 힘든 시기도 분명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와 함께한 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삶의 향기와 새로운 의미로 자리할 것입니다.

미주 지역 모든 ME부부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ME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 바실 성당 교우, 본당 수녀님과 함께

2019년 남가주 ME,
세계 사제의 날을 축하하며

2017년 페루 여행 때

COUPLE 톡톡 : 김영환 스테파노 ♥ 혜정 헬레나 부부

중북부 ME,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우리 이쁜이 어디갔지?" 김영환 스테파노씨가 아내 헬레나씨를 부르는, 그야말로 찰진 표현이다. 중북부 지역 봉사 부부로 ME 활동을 시작한 두 사람은 비록 나이로는 쉰 세대지만 요즘 신세대(?) 발표팀으로 주말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ME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이쁜이라는 애칭은 묘하게 전염성이 있어서 주위 부부들도 죄다 이쁜이 타령을 하게 만든다. 성사의 은총을 그대로 보여주는 두 사람이 4월 부부 톡톡의 주인공이다

1.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는 33년이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여 아틀란타에 살고 있고 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 첫주말을 경험하였습니까? ME 주말은 두분께 어떤 의미입니까?

H) 처형의 소개로 첫주말을 2002년 시카고에서 경험하였습니다. ME주말은 저에게는 큰 감동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W) 2002년 시카고 에서 첫 주말을 체험했습니다. 마치 신혼 여행을 다시 온 기분 이었습니다. 모처럼 아이들 없이 우리 둘만이 누리는 좋은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3.ME첫주말의 결과로 두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H) 첫 주말후 부부로서 대화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대화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배의 추천으로 바로 ME 봉사자가 되면서 ME의 진정한 의미와 소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ME는 언제나 저희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 첫 주말후 아무 것도 모른체 시카고 ME 봉사자 모임에 초대되었고 그때 맡은 직책인 재무부장직을 지금까지 맡아서 일하고 있으며, 중북부 지역 대표부부로서 2년6개월간 ME활성화와 팀 그룹 양성에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직책에 충실하기 위해 ME주말이 열릴 때면 주변의 친구 부부들을 모두 초대하여 주말을 받게 하였고 초대에 응한 친구들이 좀더 일찍 초대해 주었으면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이 첫주말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4. 발표부부로서 지나온 역사를 말씀해주십시오.

H) 공동체의 봉사 부부로는 열심히 봉사하였지만 남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해 많이 망설이다, 어렵게 2017년 5월 메모리얼 Weekend에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많이 떨렸지만 큰 호응을 보내 주는 부부님들과 같이 발표하신 신부님, 그리고 다른 발표 부부님들의 열정을 보고 많이 배우며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두 사람

2018년 보스톤 주말과 2019년 아틀란타 주말에 자신 발표 부부로 초대되어 많은 수강 부부들이 변하는 모습에 뭔가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특히 저희 부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재충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도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데 까지 계속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카고에 사는 저희 부부가 아틀란타 주말 부부를 위해 6주간 동안 '함께하는 여정'을 할 수 없어서 첫 주말에 참석한 부부들과 1박 2일로 진행을 하였는데 예상보다 호응도가 좋았고 2개의 Sharing Group이 형성되어 지금 팀 모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5. 발표팀으로 봉사하면서 특히 기억나는 일은?

H) 2018년 보스톤 주말에서 한 부부도 빠짐없이 참가부부에게서 감동적인 소감을 들었을 때 크게 감격했으며, 행복했습니다.
W) 2019년 아틀란타 주말이 성황리에 잘 끝내고 2주후 에 함께하는 여정도 끝난 후 수강자 부부 중 한 젊은부부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보니 큰상을 받은 기분 이었습니다

아들 부부, 딸과 함께 단란한 한 때

6. 누구나 삶의 고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시기나 고통을 겪으면서 ME로 인해 두 분이 서로에게 느끼는 바가 달라진 체험이 있습니까?

W) 평상시에는 싸울 일이 없던 우리 부부에게 유달리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난 그저 있는 그대로의 아들로 봐주고 싶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자질이 많은 아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스테파노에게는 항시 불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아들에 대한 실망으로 야단을 쳐도 아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야단을 치기를 바랐지만 일방적인 아빠의 권위를 내세우는 스테파노가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ME 봉사 부부로서 활동하며 팀부부가 되기 위하여 발표문을 준비하며 아들에 대한 실망이 미안함으로 바뀌는 스테파노를 보면서 엠이 봉사 부부가 된 것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많이 달라진 스테파노가 아들에게 좀더 가까운 친구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때는 마치 어두운 터널에서 햇빛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7. ME에 이제 입문한 부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H) ME는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하는 ME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후배 부부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해 주고 일치를 보여주면서 빛나는 부부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ME 홍보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W) ME는 혼자 가 아닌 부부가 봉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서로 상대를 이기려 하기 보다 예쁘게 봐주며 이해해 주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어 ME 봉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8. ME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이유는?

H)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도 무조건적, 무차별성 사랑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은 Business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봉헌하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처럼 부부가 일치를 이루고 자신을 봉헌하여 혼인성사의 거룩함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W) 열정이 아닐까요? 열정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시들해지기 때문입니다.

LOVE
CHANGES
Everything

부부 대화는 부드러운 말로!

느낌 VS 생각

<거친 말>

W : 아니, 방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람... 저번도 그랬지만 매주 당신이 어질러놓은 걸 뒤치다거리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맨날... (비난)
H : 또 시작이군. 무슨 일만 생기면 말끝마다 내가 문제라는데, 나한텐 아무 문제가 없어요!
W :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은 밖의 일이 바쁘다고 집안 일은 손도 안대잖아요. (경멸)
H : 그래, 난 집안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 공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회복 시도)
W :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해봐요. 결국 아무 것도 안 할 거면서. (다시 경멸)
H :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당신은 완전히 해방되는 거야. (회복 시도)
W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 팔자에 무슨 여행을 가요? 어이가 없네.

<부드러운 말>

W : 집안이 어질어져 있어요. 저녁에 손님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상황 묘사). 혼자서 정리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럴 때 짜증이 나요. ('나'로 시작하는 말). 여보,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청소기 좀 돌려줄래요? (분명하게 말한다)
H : 그러지 뭐, 청소는 잘 못해도 청소기는 쓸 줄 알지. 화장실도 청소할게.
W : 그렇게 해주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 고마워요, 여보.(공손한 말)
H : 다 끝내고 맛있는 점심 먹으로 갑시다.
W : 좋아요!

두가지 예에서 부부가 놓인 상황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꺼낸다고 배우자가 반드시 부드럽게 반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념한 채 배우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입씨름으로 번져 점점 힘들어집니다.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위험 요소인 비난, 모욕, 자기변명, 도피 등이 드러나지 않고, 좋은 느낌을 나눌 수 있으며, 다음에 일어날지도 모를 갈등을 미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10 주제입니다.
최근 배우자에게 거친 말을 들었을 때는 언제이고, 그때 나의 느낌은?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요한 1서 4:18

당신에게 보내는 .....

2020 Loveletter 사랑의 편지

4 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여보, 당신은 다 대화 계획이 있구나!		최근 배우자에게 거친 말을 들었을 때는 언제이고, 그때 나의 느낌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지인과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은?	나는 배우자가 어떻게 해 주었을 때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5	6	7	8	9	10	11
필리피서 2 장 6~11 절 말씀을 묵상한 후,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고통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배우자 혹은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화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한 나의 느낌?	배우자에게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게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가? 내 대답에 대한 나의 느낌은?	우리 부부는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우리 부부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12	13	14	15	16	17	18
부활은 우리 부부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 대답에 대한 나의 느낌은?	내가 포기했던 꿈은 무엇인가? 이를 다시 시작하는데 장애물이나 두려움은 무엇인가?	배우자가 나없이 혼자 결정한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	부부는 서로에게 인생의 스승이다.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우리 부부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삶을 향한 하느님의 은총을 새삼 느낀 적이 있는가? 그 은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때 배우자에게 허세를 부리고 싶은가?	내가 배우자에게 가끔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될 때는 언제인가?
19	20	21	22	23	24	25
우리가 하느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우리 부부가 매일 규칙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야할 점은?	배우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나는 잘 알고 있는가? 내 대답에 대한 나의 느낌은?	10 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행복은 습관이다. 행복해지는 습관을 개발하라!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나는 배우자의 성적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따라하고 있는 우리 부부의 말,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6	27	28	29	30		
우리 부부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부부는 의견충돌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누는가, 혹은 회피하는가?	나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혼생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소한 것 중에 배우자가 해주기 기대 하는 친절과 배려는 어떤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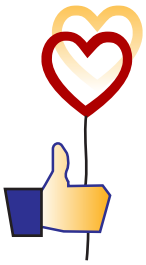
매일대화는 우리 삶의 기쁨!

MAY

당신에게 보내는 ... **Loveletter** 사랑의 편지

2020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번째는 무엇인가? 내 대답에 대한 나의 느낌은?	현재 나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3	4	5	6	7	8	9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이 최선의 것이 될 때 까지 멈추지마라" (성 예로니모) 이에 대한 나의느낌은?	내가 세운 목표를 나는 달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표를 잃고 표류 중인가? 나 또는 우리부부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관심과 무시는 증오보다도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 난 배우자와 관계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배우자의 따듯한 입맞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배우자가 나에 대해 존경하는 것은 무엇인가,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부부의 생활 양식은 우리가 신봉하는 가치를 반영하고있는가? 내 대답에 대한 나의 느낌은?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10	11	12	13	14	15	16
사도행전 6 장 1~7 절을 읽고 묵상한 후,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무엇인가?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오늘 매순간이 나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말에 대한 나의 느낌은?	배우자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고통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당신과 나눌 때 나의 느낌은?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애정이 듬뿍 담긴 스킨쉽으로 서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가? 이에 대한 나의느낌은?	내 주변에서 ME 주말이 큰 힘과 도움이 될 만한 부부 혹은 사제, 수도자는?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 대답에 대한 나의 느낌은?
17	18	19	20	21	22	23
주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은 무엇일까? 내 대답 에 대한 나의 느낌은?	나는 아침마다 의기 충만하여 일어나, 기운차게 삶을 맞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자녀들 모두를 칭찬하고 격려해보자!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10 년전 우리 부부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 부부는 과거보다 어떤 면에서 성장하였는가?	우리 부부는 은퇴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있는가?나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부가 개선할 점이 있는가? 내 대답에 대한 나의 느낌은?	불행한 부부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않고 곪아 터질 때까지 미룬다. 우리는 어떤 부부인가?
24	25	26	27	28	29	30
마태 28 장 16~20 절을 읽고 묵상한 후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무엇인가?	요즘 당신에게 내가 가장 고마워하는점은 무엇인가?이에 대한 나의느낌은?	나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가? 내 대답에 대한 나의 느낌은?	부부싸움을 한 후,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잘 때, 내게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내 대답에 대한 나의 느낌은?	우리 부부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 열정, 잘 듣기, 맛있는 칵테일 만들기, 또는?	사랑은 두사람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느낌은?
31						
성령강림일은 교회의 탄생일 이다. "부부는 작은 교회"라는 말에 대한 나의 느낌은?						



사랑의 편지는 배우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22년만에 열린 에드먼튼 제3차 주말

기고: 김영선 세라피노+민정 스텔라
밴쿠버 성 김효주 아네스 성당

캐나다 Region 6, 밴쿠버 한인 ME 는 지난 1월 31일~2월 2일 (2박 3일) 동안 에드먼튼의 Providence Renewal Center 에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에드먼튼 제3차 ME 주말을 실시하였다. 발표팀으로는 이호봉 베드로 신부님(캘거리 성 안나 성당 주임사제)과 남민우 베드로+희신 율리안나(캘거리 성 안나 성당) , 김영선 세라피노+민정 스텔라, 주민영 베드로+상은 세레나 (이상 밴쿠버 성 김효주 아네스 성당) 부부가 참석하였다. 이번 주말에는 에드먼튼 성 정하상 천주교회 (주임 천정철 세례자 요한 신부)에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참석하여 신선하고 다양한 나눔을 가질 수 있었던, 매우 풍요로운 주말이었다.

이호봉 베드로 신부님은 미사 강론을 통해 참가부부들에게 3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첫째, 사랑에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매일 대화하는 삶이 중요하다. 배우자와 10/10을 일상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체험한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충만한 은총은 바로 참가부부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참가부부는, 나눔을 통해, 자신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보여줄 때, 자신이 아이의 아빠나 엄마,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온전히 배우자로 보일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서로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부부는 이번 ME주말에 들어오기 전까지 배우자와 서로 껍데기만 보고 살아오지 않았나 싶다며, 이제부터는 가슴 속 깊이 담아둔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서로 잘 들으며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주말 참가 부부는 2월 23일에 재모임을 갖고 주말 후속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번 주말을 계기로 에드먼튼 ME 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며 주말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낸다.

에드먼튼 제3차 주말 참가부부들의 소감

이윤복 베드로 ♥ 김은숙 세실리아

새벽 안개를 헤치고 산 정상에 올라서 해돋이를 볼 때처럼 밝고 기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끔 말다툼도 하곤 했는데 ME 주말을 통해서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열어놓고 느낌을 나누게 되어서 아내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서로에게 큰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ME 주말 동안 베드로와 나의 깊숙한 마음속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거운 짐을 누군가 함께 들어주었을 때처럼 고맙고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이진회 에리코 ♥ 장윤영 안나

안나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니 앞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환멸의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같이 10/10 을 하며 더 더욱 당신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고 더 잘 공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젠 에리코와 저에게 어떠한 고통과 환멸의 시간이 다가와도 무섭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완벽한 준비를 한 것처럼 든든하답니다

장운석 노엘 ♥ 강나리 아네스

아네스의 사랑을 느낄 때 마다 저에게 쌓인 흰 눈 사이로
새로운 꽃 몽우리가 다시 피어나는 걸 느낍니다.

가끔 친한 지인들은 왠지 전보다 더 많은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노엘과 함께 뭔가 큰 일을 이뤄낸 기분에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에드먼튼 제3차 주말을 마치고 난후, 이에 대한 나의 느낌은 ?

글: 김배식 베드로 ♥ 한송이 세라피나
에드먼튼 성 정하상 성당

높으신 주님!
저희 부부가 뜻깊은 ME 주말에 다녀올 수 있게 내려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마음과 느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 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쁜 세라피나에게,
세상 누구보다 예쁘고 착한 당신에게 이렇게 예쁘다,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한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참 무심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말에서 당신과 내가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며 눈으로 대화할 때 당신은 울고 있었지만
나의 눈에 비친 당신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당신과 이렇게 마주 앉아 서로에게 편지를 쓰니 느낌이 정말 새롭고
ME 를 마친 것이 마치 행복한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네요.
지금 내 행복의 강도는 1 에서 10 중에 10 이고,
아무 근심 걱정없이 고요한 에메랄드 빛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이
한없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2 박 3 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내가 당신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당신에게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만약 주말이 아니었다면 지금 TV 를 보거나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으니 남들에게는 별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네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더 사랑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존경받는 멋진 부모가 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베드로로부터.

+ 사랑이신 주님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남편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한 나의 편 베드로에게,
먼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무 반대없이 ME 주말에 같이 참여하여
진심으로 주말에 임한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을 마치고 돌아와 밀린 집안 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면서도 정성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주말에 우리가 받은 큰 은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 후에는 성모님의 손길이 내게 닿은 것 같이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향기로운 빨간 장미와 꽃들이 예쁘게 핀 정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떼를 마시며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주말을 마친 후 가졌던 또 다른 느낌은 우리 사랑의 결실인 민준이가 옹알이만 하다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때 그 벅참과 설렘처럼,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든든하고 큰 희망과 긍정의 느낌이었습니다. 행복과 희망의 강도는 당연히 10 점 만점이였구요.

사랑하는 베드로!
나는 결심했어요. 당신이 퇴근 후 돌아오면 따뜻한 말투로 당신을 반겨주고 외출할 때도
아이들 챙기느라 아이들 손만 잡고 다니기 바쁜 우리였지만 다시 연애 때처럼 당신 손을 잡고
다니겠다는 작은 결심 말이에요. 이렇게 일상적이고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가면서
우리 ME 부부로 멋지게 살아요.

여보! 우리 더 잘 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하고, 더 노력하면서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고
도움을 주는 부부가 되도록 해요. 나도 더 잘할 게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영원한 편, 세라피나로부터.

Love is a decision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배우자,가족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은?

글: 주종익 비오 ♥ 김교은 비아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든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흐트러진 저희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용기와 희망과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비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며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비아가 내 옆에 있어 주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당신, 그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오히려 정서적인 삶은 충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마치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창밖의 풍경은 볼 겨를 없이 목적지 만을 향해 달려왔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관심 있게 보지 못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달리는 자동차는 잠시 멈추었고, 여유있는 시간 속에서 가족들을 보게 되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하게 대했는지 반성과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함과 든든함을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비오.

인자하신 하느님!
covid 19 사태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멀어진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비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이 보기 좋아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한아름 안고 들어오는 당신 모습에 감사함을 느껴요.
원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가정에도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당신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큰 의지가 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당분간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길가에 홀로 서있는 장승처럼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과 아이가 곁에 있어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인생에 조금 긴 휴가를 받은 것 처럼 설레기도 하고, 봄 날 양지에 앉아 햇볕을 받을 때처럼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열심히 일하던 당신에게는 갑작스러운 이 상황들이 불안하고 어색한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일상의 쉼표를 찍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 함께 이겨내요.

당신을 사랑하는 비아가 .

부부는 작은 교회

중북부 ME 세계 결혼의 날 행사

글: 김제홍 요한·이현아 이레네 부부(중북부 ME)

미중북부 M.E.(Marriage Encounter. 지도신부 김지황 바오로, 대표부부 진제용 안드레아+신미경 마리안나)에서는 2020년 '세계 결혼의 날(World Marriage Day)'을 맞이하여 지난 2월16일(일) 오후 5시 나일스(Niles)에 위치한 론트리 매너 연회장(Lone Tree Manor Banquet)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시카고 지역의 ME 및 예비 ME 부부 42쌍, 8명의 성직자, 수도자 등 92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시작 전부터 많은 부부들이 반갑게 만나서 흥겨운 음악 아래 담소를 나누며 ME 부부 특유의 끈끈한 정을 나누었다. 김제홍 요한 형제가 진행을 맡은 1부 행사는 부부 기도 및 대표부부의 인사, 김지황 바오로 지도 신부님의 격려 말씀으로 시작하였다. 참가부부들은 ME 활동에 헌신하다 안타깝게 작년에 돌아가신 강대희 다니엘, 김척 다미아노 형제님의 ME에 대한 열정과 모범적인 부부 생활을 되새기며 사별 이후에 남은 배우자가 ME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참가부부들이 소중한 배우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다. 먼저 남편들이 사랑의 편지를 장미꽃과 함께 아내에게 바치고, 서로 사랑의 편지를 교환하여 읽으며, 주어진 대화 주제를 두고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에 이어 박대석 보니파시오 형제가 진행을 한 제2부 여흥시간에는 신나는 음악과 게임이 분위기를 돋우었고, 이어진 댄스 타임에는 오랜만에 춤 솜씨를 뽐내는 커플들로 흥겨운 잔치 마당이 펼쳐졌다. 많은 분들의 협찬으로 준비한 푸짐한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대표부부의 마침기도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세계 결혼의 날은 매년 2월 둘째 주일이다. 중북부 ME에서는 매년 발렌타인 데이를 즈음하여 ME 부부를 대상으로 행사를 마련한다. 부부 사랑의 정신을 살려 ME가 주관하지만, 중북부에서는 매년 ME 주말 체험이 없는 부부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많은 ME 예비 부부가 참석해서 부부는 하느님의 성사임을 새롭게 깨달으며, 앞으로 있을 ME주말 피정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북부 ME 진 안드레아+마리안나 대표부부는 “세계 결혼의 날을 맞아 시카고 겨울 날씨로는 드물게 화창한 봄 날씨를 주셨고, 많은 부부들이 참석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인 아내와 남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귀중하고도 기쁜 시간이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ME 부부답게 서로 정답게 화합하며 열정적인 모습으로 성황리에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임원 부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강보나 자매님은 고 강대희 다니엘 형제님과 1975년, 혼인성사를 올렸다. 슬하에 아들 딸 두 자녀와 손주 여섯을 두셨던 고 강다니엘 형제님은 사랑하는 보나 자매님을 남기고 2019년 7월 15일 선종하였다. 다음은 45년을 함께 보낸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보나 자매님이 지난 2월 중북부 ME 세계 결혼의 날 행사에서 낭독한 사랑의 편지를 옮긴 것이다. 오랫동안 ME 발표부부로 봉사한 두분의 사랑이 배어있는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

†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약하고 외로울 때 위로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다니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참혹한 일이 왜 나에게 ….
난 지금 당신이 "여보" 하며 문을 열고 들어설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 없는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과 처절함에 눈물조차 말라 버렸습니다.
마치 칠흑같이 춥고 어두운 겨울밤 허허벌판에 홀로 버려진 것같이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 "당신 없이 혼자 못 살 것 같으니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악몽같은 이 꿈에서 빨리 깨어나고 싶습니다.

여보, 오늘이 당신이 홀연히 주님께 간지 꼬옥 6 개월이 되었네요.
ME 식구들이 당신이 남긴 ME 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잊지않고 기억하는 추모식을 하며
아쉬움 속에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해 보니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보, 기억하나요? 1988 년 ME 첫주말을 거쳐, Deeper 주말, 또 발표팀이 되기까지 멀리 걸어왔던
길이었지만 그때 2004 년 시카고 순교자 성당 친교실에서 40 부부로 처음 시작한 "세계 부부의날

행사”는 참 잘한 일중 하나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지금 까지 15 년 이상 연례 행사로 이어지며 ME 부부와 예비 ME 부부들이 모여 서로 축하하고 더 사랑하길 다짐하는 의미 있는 모임이 되었으니까요.

놓으면 깨질 것 같고 들고 있자니 너무 어려웠던 지난 10 년간의 대표부부직,
기쁨도 정말 많았지만 우리 진심을 몰라 주는 일이 있어 상처받고 좌절할 때면
“당신 마음은 내가 잘 알아!”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거려 주고 응원해준 당신.
포기하지않고 늘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의 미 중북부 ME가 있음을 압니다.
보잘 것 없는 우리 부부를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심을 느끼며 주님의 은총 속에 참으로 행복했었지요.

여보, 당신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성사 토크 마치느라,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처럼
매일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씨름하는 것이 안쓰러워 그냥 포기하자고 해도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성사 토크를 마치고 마침내 합격 통지 받을 때처럼 활짝 웃으며 기뻐하던 당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시합에 나가는 선수처럼 설레하며
중북부 제22 차 주말을 준비하던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고 더욱 사랑할 수 밖에 없어 가슴이 메어옵니다.

어쩌면 지난 30년은 ME와 함께, ME를 위해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이별식도 우리 매일 대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ME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ME 휘장에
둘러싸인 가운데 치러져 뿌듯한 느낌이었고, 비석에는 ME 로고와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ME의 비전
“Love one another as I loved you”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철부지같은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어
기쁠 때는 더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아 있는 나 혼자만의 앞날들, 어떤 거친 파도가 날 향해와도,
폭풍 가운데 있다해도 잠잠 하게 내 영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보, 날 잘 지켜 봐 주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줘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여보, 나 잘 했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남긴 10/10 노트가 지금 저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당신의 사랑이 지금 나를 살게 합니다.
나 지금 매일 당신과 10/10 대화하면서 하루하루 당신과 함께 남은 여정을 같이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보나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신 성모님의 보호와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2020년 3월 11일 COVID-19 비상 사태 해결을 위한 로마 교구, 기도와 단식의 날을 맞이하여 교황 성하의 영상 메시지로 발표된 기도의 우리말 번역문을 게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기도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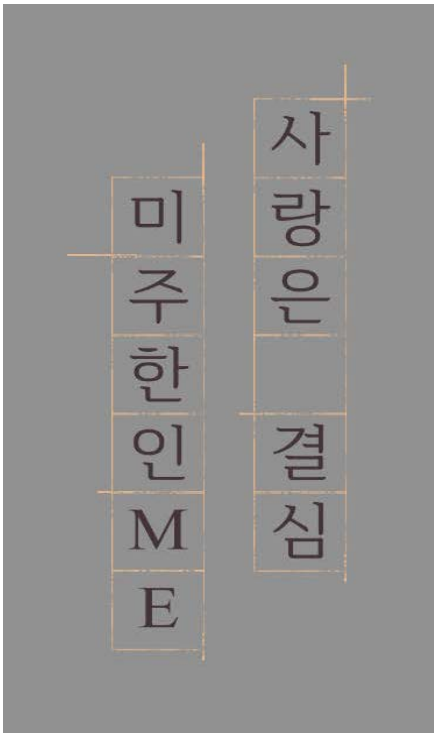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출처: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웹사이트



글,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텃밭은 ME 가족이 함께 꾸미는 우리의 스토리텔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ME 공동체에 널리 배포 바랍니다.
ME와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APR 2020